

조정준 전북대 대학원생, 동물위생학회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수의방역대학원 조정준 대학원생(지도교수 조호성)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45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준 대학원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양돈장 방역을 위한 전실의 병원체 확산 방지를 통한 차단방역 효과 평가라는 주제의 양돈장 방역시설 증진에 대해 실제 병원체를 이용한 방역시설 효과, 실증 실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조 대학원생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강화된 양돈장의 방역시설과 관련,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 수칙 준수 과정이 동시에 갖춰질 때 완벽한 차단방역이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방역 분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조정준 대학원생은 "수의방역분야 원활한 연구를 위한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며 "양돈장의 전염병 예방 및 건강한 축산물 공급 등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학원생은 수의 방역대학원의 1회 졸업 예정자(2023년 8월 예정)로, 국가재난형 가족 질병 모니터링 진단법 개선 및 차단방역 관리 시스템 개발(농림수산물기술기획사업, 연구책임자 조호성) 과제 등을 수행하며 수의 방역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창부안축협 나눔축산운동 복지시설 나눔 실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시중)은 지난 7일 부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창군 미디어에 요양병원을 방문해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소외받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완 전북농협 부본부장, 김선봉 고창부안축협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운동을 함께 했다.

김선봉 상임이사는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축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혈액원-전북현대, 헌혈자의 날 헌혈자 초청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6월 14일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7일 생생살리기 헌혈에 동참해주시는 헌혈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자 예우를 위한 전북현대모터스 흥경기 관람 초청 행사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혈액원 직원들은 헌혈자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결의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주시는 헌혈자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축구 경기 시작 전 헌혈 명문가 스포대원(가족 헌혈 685회)을 비롯하여 20여명이 현대모터스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북혈액원은 전년도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지역 내 헌혈문화 및 지역축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협약을 통해 구단 임·직원은 정기 헌혈 동참 건전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해 왔다.

이날도 행사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며 청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하는 응급처치 홍보부스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양 시군 주민복지증진에 큰 힘 될 것”

우범기 전주시장 · 황인홍 무주군수, 상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전주시와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8일 무주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갖고, 전주시민과 무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전주와 무주는 역사적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고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묘에 보관돼 있던 실록만이 화를 피했고 이후 실록이 소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사묘본을 인쇄해 깊은 산속에 보관했는데 그 중 한곳이 무주 적상산이었다.

또한, 전주시와 무주군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전주중환경시장 일원을 포함하는 미야산산업 등 경제기반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구축과 청정자연-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에서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날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전주시정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력의 시너지효과로 인해 기부문화 확산과 양 시군의 주민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무주군과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호 지자체간 교류 및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상호기부제를 통해 전주시와 무주군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비전취전 Festival'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취업지원처는 8일 대학 내 성실관 앞 광장에서 비전취전 Festiva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주비전대 재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커리어처 제작, MBTI 간이검사, 개인별 퍼스널 컬러 진단 및 활용방법 안내, 취업이력서를 위한 전용 증명사진 제공, 지문적성 검사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체험 부스들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과 업체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먼저, 이노비즈협회는 도내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에스씨넷, JB캐리어, 한국캐리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입사지원서 컨설팅, 대기업진로탐색 및 취업전략 등 실무적인 교육과 상담도 현장에서 이뤄졌다.

김서진 학생(간호학부)은 "상담을 받는 친구들 대부분이 진지한 자세로 취업박람회에 임했다"면서 "서류상의 능력



보다는 회사에 필요한 경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상담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베트남 관광학회 창립식 진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은 지난 2일 베트남 나트랑 대학에서 한국-베트남 관광학회 창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 한국 측 관계자는 관광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인평 교수(전주대 관광경영학과)를 비롯해 경기대학교 이주영 교수,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어협업협회 정후연 부회장(관광학박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관광 관련 교수로는 나트랑 관광대학 Nguyen Doan Thanh 총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베트남 관광학회는 양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에 학회 법인을 두고 정기적으로 양국 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관광 개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학술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일에는 전주대 관광경영학과와 공동 주최로 나트랑 국제 관광 학술 세미나 개최했다. 이날 스마트 관광의 미



래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주대 류인평 교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동시대 이철진 교수가 한국 스마트 관광도시 사례 연구, 전주대 김경 교수는 스마트 관광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사회적기업 위험가구 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전주시는 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35개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위험가구 상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요한 성공구 1인가구 지원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돼 사회적 기업도가 높은 고위험가구를 어떤 태도와 방법들로 접근하고, 실무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방법으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이후에는 그룹을 이뤄 지역사회와 단절된 가구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고민이 있고, 각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통해 고위험가구 전담관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토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취업성과 사회적기업도 등을 조사하고 814명의 사회적 기업도 고위험가구를 발굴했다. /김옥기 기자



라파,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사단법인 라파(이사장 유선이)로부터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대학 분과 4층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선이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라파는 유선이 이사장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건전하고 행복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사회 구성원의 행복 추구 등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유선이 이사장은 "전주대의 건립 이념인 '기록교 정신 구현'에 뜻을 함께하며, 전주대의 발전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를 사랑해 주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금은 전주대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전주고려병원 협약 · 발전기금도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대학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전주고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호 인제 양성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도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박근호 병원장과 김수옥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과 교직원 졸업 동문 본인과 피부양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간호학과 후원 및 간호인력 병원 입사 적격 지원 △양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사회공공 사업 상호 협조 등이다.

박근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의 건실한 협력력을 강화하고, 병원의 전문성을 교육 및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고려병원과의 협약 체결은 우리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동원과학기술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8일 세미나실에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산학협력 공유·협업을 위한 기업협업센터(CC)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재영 진로취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기업협업센터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기업협업센터 산업분야 맞춤형 제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기업협업센터 협력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애로기술지도 공동개발품 제공 △도출된 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워크숍 공동 개최 △CC 산업 기반 지역 정주형 취·창업 인재 양성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시기동 주민자치회, 환경정화 활동 펼쳐

지난 7일 시기동 주민자치회는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9월에 이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 환경정화 활동으로, 마을 골목 및 산책로 등에 불법 투기된 생활 쓰레기 수거와 현수막 등을 제거해 쾌적한 지역 환경 개선을 꾀했다.

고광호 시기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이 지난 7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Zero Challenge)'에 참여했다.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회용품은 없다'를 의미하는 양손으로 1과 0을 나타내는 동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또는 영상을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강병재 사장은 "탄소저감을 위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